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

불법 유통되는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저작권 보호 이슈가 다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와 구매자의 사용 권리간의 충돌은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세계적으로 저작권자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국내에서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 보호 수준을 향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통신·방송 융합으로 기존 신문·방송·출판·영화 등

의 경계가 사라지는 뉴미디어 시대가 다가왔으며 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되어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정보 교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이 가속화되어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아직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놓고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휴대전화·케이블TV 등 그 분쟁 영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DC 불법유통, 콘텐츠 산업 발전 걸림돌

디지털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과의 차이가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편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복제되고 전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정착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콘텐츠의 불법공유나 무단 복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기존 콘텐츠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혹은 기업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영화산업의 경우 외국에서 먼저 개봉된 영화의 약 90%가 국내 개봉 전에 Divx화 되어 유출되고 있다. 게임 산업의 경우 오프라인 패키지 게임은 불법 공유로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실질적인 피해는 각종 분쟁과 소송 야기는 물론 온라인 유통 시장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통 시장의 문제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는, 바로 콘텐츠 도용이 문화 산업 전반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창작물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상업적 이익으로 쓰여 지고 도용되는 현



이원진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대표

실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기업들의 제작 의지와 창조력을 꺾는 일이기 때문이다.

IT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콘텐츠의 생성과 유통을 원할하게 하고 콘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기술의 편리성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바로잡아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IT 기술로 DC 권리 구현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권

리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다. 저작권보호 및 관리기술의 도입은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원본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며, 이와 함께 제도적인 장치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보호기술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모든 콘텐츠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서 저장하며, 이를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전달, 인증된 사용자만이 해당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DRM·워터마크·DOI·INDECS 등이 꼽히며, 암호화나 콘텐츠 전달 및 배포 기술, 라이선스 및 키 관리 기술, 응용프로그램 제어 기술 등으로 콘텐츠의 불법 배포와 복제를 막을 수 있다.

전자 문서 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PDF 문서 같은 경우, 저작자는 허용된 자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액세스 퍼미션 설정이 가능하다. 워터마크 삽입이나 전자 서명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콘텐츠의 복제나 훼손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정보 기밀과 문서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DF 문서는 기업 문서는 물론 도서관 자료나 논문, 기술문서, 기밀문서 보호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변환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충격 후에는 큰 성장이 뒤따랐다. IT 기술의 풍요로운 과실을 모두 함께 누리려 한다면, 디지털콘텐츠 저작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유통과 활용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